

뿌린대로 거두리라

경남 농수산통계사무소
양산출장소

원 득 천

내가 처음으로 경남 농수산통계사무소 양산출장소에 발령을 받고 부임하였을 때에는 1983년도 4회 작물과 종면적 조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곧 이어서 조사일정에 따라 농업기본통계와 1, 2월 가축통계조사가 시작되었는데 공무원으로서의 초년생인 나는 전업이니 표본이니 하는 말자체부터 생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아서 해야 할 업무는 상북면 농업기본통계와 가축통계조사였었다. 처음 이틀간은 견학겸 실습겸하여 주무계장님과 함께 현지조사를 상북면 구소석 표본단위구 내의 농업기본통계와 가축표본조사를 나갔었다. 표본단위구 내의 첫집을 방문하였을 때 “계십니까?” 하는 말이 쑥스럽고 겸연쩍어 입안에서만 맴돌면서도 저히 입밖으로 나오려 하지않았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주무계장님이 청취조사하는 방법을 눈여겨 보면서 자신감을 쌓아갔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하는 일에는 쥐의 미로학습처럼 수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르는 법인가 보다. 나 역시 여러번의 착오와 실수를 범하면서 12월 가축통계조사를 무사히 마쳤다. 담당면인 상북면내의 자연부락 위치도 잘 모르고 하여 옆에 있는 전업농가를 지나쳤다가 다시 가고 하여 12월 가축통계조

사를 마쳤을 때는 대략 각 리동의 위치며 조사 방법에 대한 윤곽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84년 1월초에 업무분장에서 가축에 대한 제반업무를 부여 받았으며, 그후 1개면을 더 맡아서 2개의 담당면이 되었다. 3월 가축통계조사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주무계장님이 나에게 “하나 빠진게 있지”하면서 잘 생각해보라 하셨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빠진건지 알 수가 없었다. 아마 주무계장님은 내 스스로 찾길 바라는 것 같았다. 다음날 행정편람과 홀타를 뒤져보니 가축전업 규모 조사에 앞서서 각 읍면으로부터 사육농가 조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나는 순간 아차 싶었다. 주무계장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육농가조서 협조공문을 발송하라고 하셨다. 물론 그 다음에 도사무소에서 업무확인을 해왔을 때 각 읍면에서 사육농가 조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이 체크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한 셈이다.

읍사무소 · 농민협조 별무실통

그런데 지금은 빠짐없이 가축조사 개시 20일 전에 가축사육농가 조서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가축조사개시 3일전까지 회신을 하여 달라고

하지만 실제로 12개 읍면 중에서 기간내에 회신이 되는 읍면은 겨우 3~4 곳...

그렇다고 가축담당자의 입장에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하여 행정전화를 통하여 여러번 독촉을 하지만, 각 읍면 가축담당자의 전화반응 태도는 우리가 통계사무소의 하급기관도 아니고 한데 귀찮게 군다는 듯이 “회신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깐 시간이 나면 회신을 해주겠다”고 하고선 통명스럽게 수화기를 놓기가 일쑤다. 정말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통계사무소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하고 자문도 해본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인데 라고 자위를 하면서, “좋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약속한 날자에 회신이 없으면 다시 독촉, 또 독촉, 무려 14번의 독촉 끝에 회신을 받았다. 물론 조사가 끝난 후에 받는 회신은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각 읍면으로부터 사육농가 조서를 받는 목적이 가축조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사실 각 읍면으로부터의 회신 내용은 신빙성을 거의 상실하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무성의함을 조사중에 알 수 있었다. 전업규모 미만인 사람의 명단이 적혀 있는가 하

면 전업규모 이상의 명단이 누락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사육마리수에 있어서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어 차라리 사육농가로서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되지만, 다시 말해서 타당성은 있지만 실효성면에서는 제로에 가까운 것임에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각 읍면 산업계 가축담당자에 대한 꾸준한 독촉과 설득의 결과 지금은 회신의 성적이 한결 나아짐은 물론 사육마리수에 있어서도 상당히 근사치에 도달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실제로 표본조사구내를 방문하여 가축조사를 청취조사하다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주로받는 질문이 “이것 조사해서 될합니까?” “조사하면 사료줍니까?” “닭 1마리 조사해서 될합니까?” 내일 잡아 먹을건데한 사코 적지 말라는 사람, 주인이 없는 경우는 다반사이고...

통계조사에 대한 인식 안돼 있어

돼지 1마리 사육하는 농가에서 도대체 농수산부에서는 무엇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면서 비판의 화살을 귀가 따갑도록 나에게 퍼부었다. 촌에서 돼지 1~2마리 키워서 학자금이라도

보태쓰려고 했더니만 돼지파동으로 인하여 사료값을 공제하고 나니 남는게 없다고 아우성이다. 오토바이를 탈줄 모르는 나로서는 시간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나갔다. 「사료를 줍니까」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아주머니께서는 사료를 받을만큼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라도 더 정부를 위해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까」하고 반문하여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하고 (물론 공무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만) 「조사해서 될합니까」 하는 사람에게는 「가령 이 동네에 인구가 50명이라고 가정합니다. 국민학교를 하나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물론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인구가 만명이라고 합시다. 국민학교가 생겨야할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가축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의 축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며, 작게는 우리고장의 가축사육현황이 파악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나면 약간은 수긍이 간다는 듯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가격의 하락으로 그 것도 돼지 1마리 사육하는 농가에서 정부시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나 역시 칼날같이 맞서 대항할 준비가 되

어 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있는데 어떻게 4천만 인구를 상대하는 정부가 개개인의 구미에 맞도록 시원하게 가려운 곳을 긁어줍니까? 사업을 하는 사업가도 병가지상사처럼 실패도 성공도 다반사입니다. 정부가 돼지값을 마구 올려서 구미에 맞게 해준다면 정부에 대해서 남달리 헌신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피땀 흘려 애쓴 보람으로 풍년이 들어 추곡을 정부에서 사들일 때 농민이 원하는 가격 이상으로 구매하면 정부가 잘하는 것입니까? 쌀값이 오르면 다른 물가가 쌀값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은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주지 않는다하여 당장에 손해갈 것이 없고, 그렇다고 정확하게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셔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긴 안목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애국하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집앞을 쓰는 것’이라고 아저씨 논리대로 한다면 내 집앞 쓰는 것이 도저히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겁니다」 장황한 설명을 하고 나면 얼굴이 뜨거워서인지 나의 설명이 수궁이 가서인지 모르지만 대포라도 한잔 들고 가라고

한다. 갈길이 바쁘고 또 남은 일이 많지만 그때의 작은 성의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 다음 번 조사시에는 남달리 성실하게 답변해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역시 대화가 있어야하고 홍보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났다.

농민과의 긴밀한 대화 홍보 필요

한번은 표본조사구내의 집을 방문했을 때 주인이 없었다. 혹시 가축을 사육하는가 싶어서 두리번거려 보았지만 가축을 사육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집을 막 나오려는 순간 대문에서 집주인이 들어왔다. 나를 대하는 눈빛이 과히 긍정적이지 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수고하십니다.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가축통계조사를 나왔다가 주인 아저씨께서 계시지 않아서 방금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니, 「내가 당신이 이 집에 5분을 있었는지 1시간을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없으면 다음에 다시 방문하면 되는 것이지」 주인이 없는데 왜 머뭇거리고 있었느냐는 듯이 불쾌한 표정이다. 「아저씨,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공무원증을 내보이면서 신원을 확인시켰다. 그러나 막무가내식으로 「나도 공직생활을 했으나 그러면 공무원은 주인이 없는 빈

집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조사해도 되는거요?」

정말 말문이 막혀서 有口無言일 수 밖에……

그때처럼 농수산 공직자가 된 것이, 그것도 일선에서 뛰는 통계공무원이 가엾게 여겨진 적이 없었다. 어디서부터 설득하고 고쳐나가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았다. 「아저씨, 저희들도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고 한 번 나왔다가 다시 조사를 나올 수 있을만큼 인원이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이게 화약을 짊어지고 불속을 들어가는 격이 되었다. 「아니 이 농번기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오? 인원이 적고 시간이 없는 것은 당신들 사정이고 내가 알 바가 아니요. 그리고 보니 당신들은 한가한 모양이오. 시간이 나지 않으면 새벽이나 저녁늦게 방문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인원이 모자라면 더 충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때는 정말 대응할 기력조차 잃게 하였다. “공무원도 하나의 인생인데 가정도 있고 개인적인 생활도 향유해야 하는데 아저씨 말씀처럼 가정생활도 국가에 반납하고 오직 국가에 무한한 봉사만 해야겠군요”라는 말이 입안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지만 꼭참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저씨 말씀처럼 노력하겠으니 널리 양해를 해주십

사하고 사과를 한 후 그 집을 나왔다. 정말 못 볼 것을 본것처럼 하루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표본조사는 그렇다치고 전업조사 역시 많은 애로사항을 내포하고 있었다. 대개 전업규모의 사육농가는 동리와 떨어진 관계로 거의 개를 한 두마리 사육하고 있어서 접근하는데 무척 애를 먹었다. 험상궂은 불독의 모습, 사나운 도사, 작은 고추가 맵다고 강아지같이 작은 놈이 끝까지 따라오면서 바지가랭이를 물 때는 정신이 아찔하였다. 그나마도 주인이 있으면 다행이다. 계사에 들어가서 일일이 몇천수씩 되는 닭을 헤아릴 수도 없고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누구나 통계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한번쯤은 겪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6월 조사시 돈사내에 직접 확인하러 들어갔을 때 오물의 냄새로 인한 구역질을 참아가며 일일이 파악했던 일은 정말 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마냥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돼지가격전망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파동에 대한 대책이 설 수 있느냐,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서로 이마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인간적인 정을 교환할 수 있었을 때 나 자신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가축을 사육하여 생계

를 유지해 나가는 사육가에게 피력이나마 도움이 되는구나하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어떤 사육농가에서는 수고가 많다고 하면서 점심식사 대접도 받았고, 어떤 사육농가에서는 용승하지는 못하였지만 대포도 소박하게 대접을 받았다.

사육가에게 도움줄 수 있을 때 자부심과 보람 느껴

통계사무소에 부임하여 1년이 겨우 지났지만 가축통계조사를 통하여 한가지 잊을 수 없는 일은 어떤 분이 개를 키우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돼지를 한번 키우고 싶다고 나에게 어떨겠느냐고 질문을 해온 적이 있다.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이 83년말 돼지파동이 한창일 때였으니 대답은 자명한 것이었다. 그래서 「아저씨, 지금은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료를 먹이지 말고 잔반을 먹인다면 값이 아주 싼 현재 새끼를 구입하여 84년 추석무렵에 출하하면 제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바다시세를 헤매던 돼지가격이 점점 반등하여 짹짹한 재미를 보았다면서 내말이 옳았다고 84년 9월 가축조사시 칩사대접을 받은 기억은 정말 잊을 수 없다.

이제는 가축통계조사 결과가 송부된 것을 보고 돼지가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파동이 오겠는가를 어렵פות이 짐작할수 있는 안목도 생기게 되었다. 항상 기쁘면 기쁨이 아니요, 항상 슬픔이 아니기에 기쁨과 슬픔이 적당히 조화된 나날을 우리가 영위하듯이 가축통계조사역시 어려움과 보람을 함께 할수 있는 것이기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속에서도 수행해 나가는가 싶다.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공직생활을 통해서 가축에 대한 제반업무를 맡은 담당자로서 열심히 뛰고 노력한 탓인지 모르지만 별다른 탈없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 같다.

끝으로 가축통계조사를 수행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사육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많은 홍보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뿌린대로 거두리라는 성경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유대관계가 돈독히 잘 이루어진 사육농가에서는 두번다시 “이것 조사해서 뭘 합니까” “대충 적어가소” “자료 줍니까”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물론 여러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상당한 홍보가 되었지만 아직도 가축통계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통계조사역시 적극적인 대민홍보가 꾸준히 있어야했음을 통감한다. *